

광주·전남 지역 랜드마크 설치 붐?

광주시 틀게이트에 조성·전남도 설문조사
장성·화순군 이미 설치, 여수시는 공사 중
지역 고유 이미지 상징할 수 있을지 미지수

광주·전남 지역에 랜드마크 설치 붐이 일고 있다. 지역을 상징할 조형물을 다양한 색깔·구조가 버무려진 디자인으로 만들어 지역 진입로 등에 세우는 방안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한다는 조형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애초 의도대로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15일, 전남을 상징할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키로 하고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도 1000년을 지나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전남의 희망과 미래를 새겨 넣은 랜드마크를 조성, 도민들의 정체성을 담아내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우선, 전남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거쳐 조형물을 어디에 세우는 게 가장 효과적지를 비롯, 조형물에 형상화할 역사, 가치, 미래상과 조형물 형태, 크기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디자인 공모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조형물 디자인 컨설팅을 정하기 위한 도민 여론조사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설문에는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진입 고속도로 분기점·도 경계 등), 연상되는 이미지, 대표할 유일한 유무형 자원, 특산물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도 진입로인 광주틀게이트에 20억원



장성군 조형물 '엘로우게이트'.

을 들여 광주시 정체성을 담은 '관문형' 폴리작품을 조성키로 했다. 의향·예향·미향을 기반으로 한 '광주다움'을 비롯해 광주의 멋과 맛이 빛을 통해 세계 공동체에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게 광주시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후 광주송정KTX역에도 연결통로와 주차장 건물 벽면에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확대·연계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장성도 광주에서 장성으로 가는 장성군 진원면 국도 1호선 구간에 가로 34m·세로 28m 크기의 관문형 조형물 '엘로우게이트'를 10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삼각형은 장성의 안정, 상승, 희망을 상징하고, 사각형은 호남의 중심과 화합을 의미한다는 게 장성군 설명이다. 노란색은 '엘로우시티 장성'을 의미하는 등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 등 세 가지 색깔에도 의미를 담았다.

여수시도 진입로인 국도 17호선 덕양교차로 인근에 29억



화순군 조형물 '꿈의 향연'.

원을 투입, 한옥형 게이트 조성 공사를 진행중으로 오는 5월 완공 예정이다. 화순군도 이십곡리 인근에 '꿈의 향연'이라는 9억원 상당의 상징 조형물을 2016년에 설치했으며 농주에도 '목사고을 농주문'이라는 한옥형 게이트가 만들어진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13억원 들여
노후가로등 LED로 교체

광주시는 야간 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올해 13억원을 투입해 노후가로등을 교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 장소는 동구 의제로, 서구 회재로, 남구 화산로, 북구 하서로, 광산구 상무대로·북문대로 등 5개 노선 총 13km 구간에 설치된 지 15년 이상이 지난 노후 가로등 600등이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8월까지 노후가로등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고 노후점멸기, 기동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42곳의 1등용을 2등용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등 밝기를 개선한다. 가로등 규격도 표준화함으로써 LED 모듈만 교체 가능하도록 해 유지관리비 절감, 전기요금 감축 등 효과도 기대된다.

양영식 도로과장은 "노후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바꾸면서 운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해서 확보해 LED 조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택시업계 '노사 상생 도시 광주' 실현 동참

시·택시업계 노사 협약 체결...민간기업과 최초

민선 7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 상생 도시 광주' 실현에 지역 택시업계 노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다.

이용섭 시장과 택시업계 노사는 15일 시청에서 '노사 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노사 상생 도시 광주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노사 상생 도시 광주 실현'과 관련한 민간기업 노사와의 첫 번째 협약이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 12개 지부와 광주지역 택시노동조합 21개 분회 등 총 33개 노사 대표가 함께 참여해 '노사 상생 도시 광주'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민간기업 노사와의 첫 협약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 등 공공부문에서만 이뤄졌던 노사상생 협약이 앞으로 민간부문 영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광주시는 '노사 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18일 5개 자치구와, 같은 달 27일에는 7개 공공기관 노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택시업계 노사는 이날 협약서에서 ▲상생 문화 정착을 통해 노사 상생 도시 만들기 적극 동참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협력 ▲선량한 사용자 의무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통한 노사 상생 분위기 조성 ▲광주지역 택시운수사업자 지원사업 확대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노사 상생 도시 광주를 만드는 일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

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다"며 "이번 협약을 함께 실천하고 시민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 상생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대표로 최진영 광주지역택시노동조합 의장은 "택시노동자들이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 전역에 울려 퍼지고 대한민국 전체 산업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운택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장은 "협약 이후 택시 노동자들이 노사상생 도시 광주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발전적 계획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세계김치연구소, 김치산업 활성화 손 잡다

이용섭 시장, 연구소 방문
4가지 상생 협약 합의

광주시와 세계김치연구소가 광주 김치산업 활성화와 김치 중추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조만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김치산업 육성에 관한 청사진을 밝히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오후 세계김치연구소를 방문해 광주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체결될 상생협약에는 ▲김치에 우리나라 음식문화와 전통을 담고 ▲김치가 곧 산업이고 경쟁력이 되어야 하며 ▲김치 우수성을 과학과 기술로 증명 ▲홍보·마케팅 등 정책 지원의 뒷받침 등 4가지 방안을 담게 된다.

양 기관은 또 국가 공인 유산군시험센터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센터는 기능성 유산균을 대량 생산해서 전국 김치업체에 보급하고 기술지도 하는 기

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와 세계김치연구소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김치 중추도시로서의 영광을 다시 찾고, 세계김치연구소의 위상도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광주 김치를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김치 관련 자원을 활용해 광주 김치를 산업화함으로써 김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목표를 표다.

이를 위해 ▲김치산업 인프라 확충과 김치 업체 경쟁력 제고 ▲광주세계김치축제와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 대전 전국화 ▲김치타운을 전국 유일 김치복합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시의원, 세계김치연구소, 김치관련 유관단체, 생산업체 및 마케팅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남해안 관광벨트' 김영록지사 직접 챙긴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시작
도내 관광자원 대상 현장투어

관광산업과 에너지신산업을 민선 7기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전남도내 관광자원에 대해 현장투어에 나선다.

현장에서 주민, 관광객들과 만나 정책과 사업을 다듬어 전남 관광산업전략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15일 전남도는 "민선 7기 제1호 브랜딩 시책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위해 김 지사가 15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고하도 역사유적공원'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사업 대상지 현장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장투어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챙겨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련되게 가다듬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민, 관광객과의 현장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남해안에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의 광역벨트로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올해부터 5년간 500억원을 들여 옛 일본 영사관 등 374개에 이르는 역사문화자원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고하도 역사문화유적 공원은 이순신 장군의 호국 유적을 복원해 청소년 역사교육의 산실로 조성된다.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우리나라 근대역사의 중심지로, 일제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목포 근대역사유적과 고하도 이순신 호국유적을 역사교육 공간으로 재구성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전남만이 가진 특별한 자원을 매력있는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서로 연결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전남이 세계적 섬·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서남해안 시군을 따라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 대상지를 포함해 신안·임해·해남·화진 등 해양관광도로 단절구간, 목포·보성·남해안철도 사업구간, 주요 섬들을 돌아볼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21회

담양대나무축제

2019. 5. 1 수 ~ 5. 6 월

죽녹원 / 관방제림 일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